

시인의 마을



하여(何如), 미쳐야 한다면

노력 없는 행운을 기대하며 하나에 미쳐보면 네 일 클로버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생각 되고 일상의 방향 감각은 그 간절함으로 카오스 [chaos]되어 마음은 준비 없는 선물만이 뜬구름처럼 저마다의 강이 된다 하여(何如), 미쳐야 한다면 바르게 미쳐야 강 단진 삶이다

-박여범 시인 '하여(何如), 미쳐야 한다면' 전문-

|| 시詩를 담다 ||

'미치다(자동사)라는 주로 '~에'의 뒤에 쓰인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열 중함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치겠다'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치다'라는 것이다. 대다수는 '하나'에 미친다. '공부', '게임', 'TV', '영화', '쇼핑', '스포츠', '성형', '아르바이트', '연예', '여행', '복권', '마

약', '사기', '절도'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행운'이 아닐까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네 일 클로버를 찾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네 일 클로버의 행운을,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위의 시처럼, /마음은 준비 없는 선물만이 뜬구름처럼 저마다의 강이 된다. /마음, '선물', '뜬구름'이라는 핵심어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무엇에 미쳤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미쳐야 한다면 바르게 미쳐보자.



박여범

음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설

미래교육캠퍼스 구축이 절실한 이유

전북의 미래 교육의 거점이 될 가장 미래교육 캠퍼스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전주 예코시티 이전이 확정된 전라중학교 기존 부지에 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라중학교 부지가 포함된 전주 덕진권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생들을 위한 미래, 창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공간에 '전통 문화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 단지' 등을 조성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곳에 미래교육 캠퍼스를 만들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체험관이 들어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

터 대학 입시를 위해 씬 없이 달린다. 대학에서는 온통 취업에 매달린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경쟁으로 내몰린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금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지 걱정이다. 끝없는 경쟁 구도 속에서 부모도 아이도 지쳐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변화의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찾아야 한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주어야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때이다.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 미래교육 캠퍼스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김제 출신 SCI평가정보 문제우 회장

김제 공덕 출신 문제우씨가 종합신용정보회사인 SCI평가정보(주) 회장에 취임했다. 문제우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15일까지 3년이다. 그는 남성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19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율촌 교문을 지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퇴임 후 손해보험협회장, 한국금융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다. 한국공인회계사와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PwC 뉴욕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회계 전문가다. 문제우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으로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빅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신기

술 금융 서비스 업무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I평가정보(주)"는 사업 전반기에 걸친 혁신을 통해 최고의 종합신용정보회사로 성장·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 신용 등급 제공, 기술신용 평가,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 회사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있다. SCI평가정보(주)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다각도로 개인 신용 평가 사업의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 12월에는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와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기술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종합신용정보 회사로서 공신력 제고와 개인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